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협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5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2월 5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시·도회장님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기계설비 발전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했으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확대와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을 크게 개선시켰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는 시·도회장님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력 덕분이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정해돈 회장은 또한 “그동안 대과없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 시·도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해 시·도 회장님들과 함께 열정을 쏟았던 지난 3년간은 참으로 행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회장 회의에서는 협회가 지난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보고가 있었다.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공공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 개정
- △ 국가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제도개선 추진
- △ 해외개발금융 포럼 참여 및 제도개선 건의
- △ 각종 정책 간담회 개최
- △ 제32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관리
- △ 산학협력 위탁교육
- △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개정 추진
- △ 전국 설비관련학과 우수졸업생 시상
- △ 2014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발표
- △ 협회 홍보활동
- △ 제50회 총회(정기) 소집
- △ 협회 제9대 회장 선출관련 업무
-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 제8대 임기를 마치며 -

김영완 부회장 : 각 지역 회장님들의 의견이 협회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되어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함께 일한 것이 영광이다.

송기영 감사 : 해외건설은 불공정 계약이 만연하고 선급금이나 기성금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협회가 해외설비 건설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에 나설 것이므로, 기대가 크다.

울산·경남도회 김재홍 회장 : 해외건설은 업계의 큰 화두다. 조합에서 유능한 전문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원도회 장효성 회장 : 숙원사업인 분리발주 법제화가 실현된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모두가 합심하여 일구어 낸 성과다.

전북도회 이영길 회장 : 분리발주 법제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정해돈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협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제주도회 장영흥 회장 : 제주도회는 회원사가 적어 협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제주를 사랑해 주길 부탁한다.

대구시회 김주환 회장 : 정해돈 회장님을 비롯해 본회의 추진업무가 대단했다. 각 시도회가 본회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한다면 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도회 이연풍 회장 : 분리발주 법제화 후속조치로 공공발주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기관장 간담회 및 일간지 광고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자.

대전·세종·충남도회 황광연 회장 : 사업추진에 여러 시·도회장님들이 큰 지혜를 발휘해 줬다. 앞으로 9대에는 품셈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

인천시회 최호선 회장 :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업계 위상을 높여야 한다. 제9대에도 업계와 협회 사업추진에 대하여 더욱 활발한 홍보를 부탁한다.

부산시회 김재업 회장 : 지난 2년 동안 함께 일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 앞으로도 회원사 간 협력을 강화해 더욱 발전된 협회를 만들어 나가자.

경북도회 추용업 회장 : 지난 3년간 유능하신 시·도회장님들을 만나 협회 운영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앞으로도 협회와 업계의 위상강화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충북도회 정두순 회장 : 여러 시·도회장님들의 훌륭한 인격에 감화되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업계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다.

경기도회 김석환 회장 :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경기도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협회 위상강화와 사업추진에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한수 감사 : 분리발주 법제화는 제8대 집행부 모든 분들이 노력하여 성취한 결과다. 제9대에는 분리발주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결해야 한다.

백종운 부회장 : 3년이라는 시간동안 부회장 자리에서 회장님을 잘 보좌했나 아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다. 협회 사업추진에 정말 고생 많았고 감사하다.

이상일 부회장 : 시·도회장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시도회장모임을 잘 이끌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회 총회에서 선출될 서울특별시회 제9대 회장에게도 뜨거운 성원 부탁한다.

김경희 총괄본부장 : 3년간 정해돈 회장님을 모시고 일하며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회원사를 위한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장님을 잘 보좌하겠다.

강신구 부회장 : 지난 시간동안 기계설비의 위상이 대단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협회를 이끌어줬고, 협회와 업계의 위상강화를 위해 적극 홍보한 결과다.

정해돈 회장 :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시·도회장님, 부회장님, 감사님 그리고 협회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이루어낸 결과다. 개인적으로는 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떠난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대단히 행복했다. 🍀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의결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11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3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2월 11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3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의 건 △제50회 총회(정기) 소집의 건 △유공자 포상 결정의 건 △고문 위촉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월 중순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중소기업 경제사절로 세계 4위의 건설시장으로 도약하고 있는 인도를 방문했다”면서 “앞으로 발전소 건설과 대규모 제철소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도 건설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설비건설 업역확대의 좋은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해돈 회장은 또한 “그동안 협회는 분리발주의 법적 근거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기계설비 발전계획 조항 신설,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지급보증 확대 및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이 사님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력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협회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공공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 개정
- △ 국가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제도개선 추진
- △ 해외개발금융 포럼 참여 및 제도개선 건의
- △ 각종 정책 간담회 개최
- △ 제32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관리
- △ 산학협력 위탁교육
- △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개정 추진
- △ 전국 설비관련학과 우수졸업생 시상
- △ 2014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발표
- △ 협회 홍보활동
- △ 협회 제9대 회장 선출관련 업무

- 제8대 임기를 마치며 -

심기석 이사 : 진정한 스승을 만나거나 열 명의 친구를 만나거나 백권의 책을 논할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 라는데, 임기동안 여러분이 제 스승 이었고 논의할 수 있는 친구였다.

이종원 이사 : 모든 분들께 사업 번창과 건강과 행운을 빈다. 앞으로도 협회와 업계의 위상강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전치권 이사 : 소치에서 올림픽 대표들이 열심이 뛰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8대 임원 모두가 올림픽 선수 처럼 힘차게 뛰었다.

정달홍 이사 : 분리발주 법제화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협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조종택 이사 : 과거에는 우리가 법령을 고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우리가 해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일해서 기뻐다.

이호석 이사 :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큰 성과를 냈다. 우리 업계의 숙원사업인 분리발주 법제화가 실현된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위윤희 이사 : 지난 3년 동안 협회 발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행복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업계 위상을 높여야 한다

양효석 이사 : 정해돈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사님들께 감동받았다. 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 쓰셨다. 그동안 함께 일해서 매우 보람되었다.

김원열 이사 :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해돈 회장님과 이사님들이 적극 노력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둔 것 같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평기 이사 : 설비업계 위상제고를 위해 “기계설비인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했으면 좋겠다. 또한 재건축·리모델링 공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매뉴얼을 만들어 적정공사비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백수현 이사 : 지난 3년간 이사님들을 만나 협회 운영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가 더욱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강현우 이사 :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대외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 덕분에 큰 성과를 낸 것 같다.

장순경 이사 : 8대 집행부의 사업성과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모여 일궈낸 것이다. 충북도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업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정성조 이사 : 우리 업계의 숙원사업인 분리발주 법제화가 실현된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 앞으로도 협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윤광수 이사 : 지난 3년은 모두가 힘을 합쳐 협회 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 어느 자리에 있던 기계설비를 사랑하고 협회를 아끼는 마음을 간직하겠다.

우광현 윤리위원장 : 우리 회원사도 윤리경영이 필요하다.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고사가 있다. 소는 물을 거스르지 않고 천천히 떠내려가다가 결국 살아남는다. 순리를 따르면서 윤리경영을 하다보면 업계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조기호 편집위원장 : 편집위원장으로 협회 위상제고를 위해 협회지의 확대배포와 질적 향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최근 정부 문제와 업계 문제 등 고민이 많아서 신문사에 기고도 했다. 이런 노력이 우리 업계 발전에 힘이 됐으면 한다. 

제9대 회장 후보자 등록서 심의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협회 접견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석대)는 지난 2월 12일 협회 접견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9대 회장 후보자 등록서 심의 및 기호추첨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 및 회장및시도회장추대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7일 제2차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제9대 회장 추대후보로 선정

된 (주)정도설비 이상일 대표이사의 후보자 등록서를 심의했으며, 후보자가 1인이므로 기호추첨은 생략기로 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26일 제50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선출될 회장에게 당일 제3차 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회장당선 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상일 제9대 회장에게 당선증 전달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이상일 신임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석대)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설비건설회관 접견실에서 제3차 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서 열린 제50회 정기총회에서 전국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이상일 (주)정도설비 대표이사에게 회장 당선증을 전달했다.

강석대 위원장은 이상일 제9대 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며 “탁월한 지도력으로 기계설비업계의 결속을 다지고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당선증을 받은 이상일 신임회장은 “화합과 소통의 협회를 만들어 장차 기계설비가 미래 건설 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석대 위원장(왼쪽)이 이상일 신임회장(오른쪽)에게 회장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시 업계 의견 반영” 건의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희 총괄본부장은 제3차 국회 해외개발금융포럼에서 상호 공정한 계약관계를 기초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 해외개발금융포럼은 지난 2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포럼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이만우 의원, 이현재 의원, 김영우 의원 및 최재덕 해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협회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1월 21일 열린 2차 토론회 시 기업 및 유관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국토부, 공정위, 수출입은행, KOICA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중소·중견기업 해외보증지원 성공사례’와 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업체의 해외보증 실태 및 건의사항’이 발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플로어발언을 통해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해외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특히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희 총괄본부장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신중한 제정검토를 건의했다. 김 본부장은 “기계설비공사 등 전문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공사의 불공정하도급에 따른 국내 전문 건설사의 피해 사례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폐해 근절을 위해서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상호 공정한 계약 관계를 기초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되어야 하며, 종합건설사의 저가덤핑으로 인한 손실을 전문건설사에 전가할 수

있는 Back to Back 조항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안시권 건설정책국장은 “중소·중견기업 의견을 토대로 공정위와 협조하여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안을 금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며, 포럼 공동대표인 김태원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의내용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업계 의견 반영 등 신중히 검토돼야”

- 이종광 박사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을 주로 하는 **기계설비공사 등 전문건설업체의 해외공사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이는 해외진출을 통한 국내 **전문건설사의 새로운 수주물량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 종합건설사들의 **무분별한 해외 덤핑수주**에 따른 **리스크**가 국내 전문건설사로 급격히 전가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함
- 따라서 국토부와 공정위는 해외공사의 불공정하도급에 따른 국내 전문건설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의 기본방향이 **갑(종합건설사)과 을(전문건설사)**의 상호 공정한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제정되어야 하며,
 - 발주자와 갑의 불합리한 계약조건과 **갑의 저가덤핑** 등에 따른 각종 손실을 을에게 전가할 수 있는 **Back to Back조항**(발주자와 갑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하도급계약조건에 적용하는 방식)이 표준계약서에 삽입된다면 **갑의 불공정행위를 정당화**하는 명분만 주지 않을까 우려됨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숙고를 건의 드림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홍보 강화




대한설비건설협회 TF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지난 2월 5일 서울시회 회장실에서 제13차 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TF 위원회(위원장 이상일) 회의를 개최했다.

TF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방문 및 분리발주 관련 업무협의 등 분리발주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개정 등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등

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일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분리발주 후속조치를 비롯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시행령 개정 홍보와 주요 발주기관 방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분리발주가 정착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에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폭넓은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9대 회장 후보자 등록서 심의



서울특별시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가 지난 2월 12일 개최됐다

서울특별시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효련)는 지난 2월 12일 서울특별시회 회장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후보자 등록서 심의 및 기호추첨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회 회장선출규정 제9조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7일 제2차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제9대 회장 추대후보로 선정된 윤창기 공(주) 백종윤 대표이사의 후보자 등록서를 심의했으며, 후보자가 1인이므로 기호추첨은 생략키로 했다.

서울특별시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4일 제45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선출될 회장에게 제9대 회장 이취임식 당일 회장당선 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

장학생 선발 등 심의·의결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2월 20일 제26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2월 20일 제26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장학생 선발 등 부의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이상일 회장은 “지난 해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서울시 관내에서 총 90여 건의 공사 발주 성과를 거두었으며, 권역별 간담회를 매년 상하반기 10회에 걸쳐 개최하여 협회 업무를 일반 회원사에게 알리고 서로 소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지난 3년간 서울특별시회를 대과없이 이끌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운영위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업무 추진실적과 3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의 3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전원회의 및 제45회 총회(정기) 개최
- 분회 회장 및 서울시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 2014년도 적용 『기계설비 일위대가표』 배부
-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추진(계속)
- 분리발주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업무 추진 

신용평가 및 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 교육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2월 7일 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 강습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2월 7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근에 개정된 발주기관별 시설공사 입찰제도 및 주계약자공동도급 입찰기준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회원사 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 강습회를 실시했다.



김철현
이크레더블 선임연구원

회원사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실무 교육에서 서울특별시회는 1부 행사로 이크레더블 김철현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신용평가방법 및 등급

관리방안에 대해 교육했으며, 2부 행사에서는 서울특별시회 경영지원팀이 각 발주기관별 적격심사기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1부 신용평가 교육에서는 신용평가의 오해와 정의를 비롯해 등급체계와 평가요소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관리방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교육해 회원사의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이해를 넓혔으며, 2부 입찰교육에서는 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 일반사항을 비롯해 조달청·지자체 적격심사 실무사례,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가스안전 책임의식 강화, 가스사고 ZERO화 기원




인천광역시회는 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및 인천가스안전리더클럽 함께 가스사고 ZERO화 기원 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회(회장 최호선)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권종택) 및 인천가스안전리더클럽(IGS,LC) 회원 20여명은 지난 2월15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가스사고 ZERO화 기원 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인천 계양산 1코스를 걸으면서, 가스안전 활성화 방향에 대한 담소와 함께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최호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인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스사고로 인해 인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

서 “가스사고 ZERO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스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설비안전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권종택 본부장은 “겨우내 얼었던 가스시설이 기온 상승으로 배관이나 호스 연결부위 등이 헐거워지면 가스가 누출되어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면서 “불량 및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가스사용 시 가스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인천을 함께 만들자”고 밝혔다. 

이웃에게 따뜻한 情 나눔



광주 · 전남도회는 지난 1월 27일과 28일 소외계층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랑나눔성금을 전달했다

광주 · 전남도회(회장 이연풍)는 지난 1월 27일 소외계층 복지시설인 ‘광주 사랑의 집’과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회’를, 지난 1월 28일에는 ‘돈보스코 나눔의 집’과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를 방문해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했다.

이연풍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며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훈훈한 정을 나누고 싶었다”면서 “광주 · 전남도회 전 회원사의 뜻이 담겨있는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따뜻한 설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 전남도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성금 기부 등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과 경제적 곤란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